

부활을 믿느냐?

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어느 구석에서 오르내리는 모양이어서 내 귀에 들려온다. 하기는 누가 날더러 “당신은 부활을 믿소?” 하고 묻는다면 때로는 “안 믿소!”라고 할 수도 있다. 까닭은 묻는 이가 벌써 부활에 대한 일정한 표상을 갖고 바로 그런 부활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 들다 보이기 때문이다. 그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. 우선 남의 신앙을 심판하려는 태도가 옳지 않으며 또 직접 글로 공시한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물어 오는 것은 필경 좋지 않은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. 종교 재판시대는 지나갔고 또 학문의 자유, 넓은 관념, 조직에서의 탈출 등 심지어는 신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판에 하필이면 부활을 믿느냐고 묻는 것은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다.

신약성서는 전체가 부활사건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. 그런데 신약성서를 전공하는 사람에게 부활을 믿느냐라는 질문이나, 심지어 부활을 안 믿는다는 단언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하라! 나는 부활론을 학문적으로 발표한 일은 없으나 부활설교는 수없이 했고, 『현존』에도 몇 차례 부활을 말했다. 그러나 “어떤 부활을?” 하는 데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.

부활신앙의 형식은 신약성서 자체에서도 결코 통일돼 있지 않다. 부활을 논하려면 아주 복잡하며 학문영역에서 아직도 많은 이론

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. 그러니 “부활을 믿느냐?” 하면 자연 “어떤 부활 말이오?”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고, 그렇게 되면 결국 신학논쟁이 벌어져야 한다.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다. 그것은 부활신앙 없이는 그리스도 신앙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. 그러니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은 그리스도를 믿느냐와 같은 말이 된다. 그러므로 그같은 질문은 종교재판소에서나 할 말이다.

남에게 부활을 믿느냐고 묻고 싶은 이는 먼저 스스로 부활을 믿고 있는지 자문했으면 한다. 그리고 믿는다는 대답이 나오면 부활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자문했으면 한다: 가령 겨울에 죽었던 초목이 봄에 모두 되살아납니다. 이것은 부활의 확증입니다? 역사상에는 퇴각했던 정의가 결국 다시 살아나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이처럼? 이러한 부활이라면 믿을 게 못 된다. 보면 된다 또는 예수가 부활하여 갈릴래아에 나타난 기사를 보고 믿는다? 그러나 맨 처음의 복음인 마르코복음에는 갈릴래아 부활 현현을 전제했으나 보도는 없으며, 루가는 예루살렘에서의 부활 현현만 보도할 뿐 갈릴래아 부활 현현을 묵살하며 마태오는 갈릴래아 현현만 보도한다. 그러면 빈 무덤의 보도로서 부활을 믿는다? 공관복음서를 자세히 비교해 보는 성의를 가지는 이는 그 빈 무덤 보도가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곧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, 또 부활신앙을 전제로 하는 바울로를 위시한 모든 편지의 저자들에게는 〈빈 무덤〉 이야기는 단 한번도 언급돼 있지 않다. 그렇다고 저들의 부활 신앙을 의심할 수는 없다. 십자가는 패배요, 부활은 승리라는 의식에 부활을 믿는다? 십자가는 정말 패배인가? 오히려 하느님의 승리 아닌가? 그러면 부활과 그렇게 유리된 사건인가? 왜 부활이 이기고 진다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하나? 부활은 오히려 강자의 기준에서 볼 때 패배, 실패, 무능 오히려 약자의 입장에서는 승리, 성공, 전능이라는 사실을 제시한 사건 아닐까? 어떻게 한 부활 말인가?

지난 여름 동안 공관복음서의 부활보도를 분석하고 신약성서의

부활관을 논문화하려고 계획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. 대학원에서 두 차례나 부활과 관계된 문헌과 텍스트를 학생들과 함께 분석하는 세미나를 했으며, 이번 석사논문으로서 한신대 조교인 진연섭 군을 지도하면서 이제는 자료분석이나 방향은 좀더 밝혀진 셈이다. 부활문제는 성서의 중심일 뿐 아니라 나의 존재이해에 있어서나 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이다. 이 문제에 관한 한 나의 신앙 걱정 보다 각자가 자기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줄로 안다.

(1972. 9.)